

[소피아] 불가리아, F-16 인도 지연으로 중고 그리펜 및 중고 F-16 도입 검토

'26. 8월. 3일(월)

□ 개요

- '26년 7월 28일, 불가리아 국방부는 중고 JAS-39 그리펜 및 F-16 전투기, MiG-29 부품·엔진 확보를 위한 국제 파트너 대상 인콰이어리 착수
- F-16 Block 70 2차 도입분(8대)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'28년 완전 작전운용능력(FOC) 확보 시점까지 메우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

□ 주요 내용

- (추진배경) 1차 도입분 8대는 '25년 12월 인도 완료했으나, 조종사 자격 취득·기지 인프라 미비로 실제 작전 투입은 '28년으로 예상, 실전배치 전까지 MiG-29(현재 15대 보유)기를 운영하여 영공 방위 대기태세(QRA) 및 NATO 공중감시 임무 수행

○ (인콰이어리)

구분	옵션	비고
부품	폴란드산 MiG-29	조종사·정비인력·그래프 이그나티에보 기지 인프라 기보유로 도입 즉시성 최고. 단, RD-33 엔진 창정비 소요, 부품 재고 급감(과거 엔진 10대 창정비 입찰 유찰 전례), 실효 수명 1~2년에 불과
완제기	중고 록히드마틴 F-16	Block 70과의 공통성은 과대평가 우려. 유럽 내 매물 대부분 80~90년대 생산 A/B·C/D 형상으로 엔진·레이더·임무SW·정비절차 상이, 별도 부품계통 및 전환훈련 필요
	중고 그리펜 JAS-39	스웨덴이 리스·금융 포함 패키지를 반복 제안, 헝가리·체코 운용 중으로 역내 정비 기반 존재. 단, MiG-29·그리펜·F-16 3개 기종 동시 운용 시 소수의 조종사·정비인력 분산 불가피, 2~4년 운용에 수억 유로 소요 가능

- (추진 경과) '26.7.24 스토야노프 국방장관은 MiG-29를 주로 부품 공급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, 중고 F-16과 그리펜에 대해서는 미국과 스웨덴에 서한을 발송

□ 시사점

- 본건은 신규 주력기 선정이 아닌 '28년까지의 가교 전력 확보가 목적
- 불가리아는 F-16 8대를 인도받고도 조종사 양성, 교관 확보, 정비조직, 시뮬레이터, 지상지원장비, 무장 재고가 동반되지 않아 운용 가능 대수가 4~5대로 축소되는 등 전력화 이슈 해결 필요

□ 정보원 및 일자 (2026.7.31.)

<https://www.armyrecognition.com/news/aerospace-news/2026/bulgaria-g-ripen-vs-f16-second-hand-fighter-jet-delay>